

담당부서 :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
(서울-멕시코시티 지속가능한 도시포럼)
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
(멕시코주지사연합회 초청만찬)

재생정책과장	백운석	2133-8608
담 당 자	이주연	2133-8656
국제교류담당관	최원석	2133-5260
미주구주팀장	전기호	2133-5284
담 당 자	이현음	2133-5288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4매

박원순 시장, 멕시코시티에 '서울형 도시재생' 전수...초청강연

- 8일(월) 건축가, 공무원, 대학생에 「서울-멕시코시티 지속가능한 도시포럼」 초청강연
- ‘사람 중심 서울형 도시재생의 현재와 미래’ 주제로 약 20분 간 영어 프레젠테이션
- 서울로7017, 세운상가, 서울책보고 등 소개... 미래 도전과제 ‘지립형·스마트·친환경’ 제시
- 멕시코 32개 지방정부장 연합 ‘멕시코주지사연합회’ 만나 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 모색

- 중남미 순방길에 오른 박원순 시장이 멕시코시티에서 ‘서울형 도시 재생’ 전수에 나섰다.
- 박원순 시장은 8일(월) 17시30분<현지시간> 순방 첫 일정으로 멕시코시티 건축가협회 강당에서 열린 「서울-멕시코시티 지속가능한 도시포럼」에서 ‘사람 중심의 서울형 도시재생의 현재와 미래’를 주제로 강연했다.
- 이날 포럼은 주한멕시코대사관과 멕시코시티 건축가협회(Colegio de arquitectos de la ciudad de mexico)가 주최한 것으로,

멕시코건축가협회 소속 건축 전문가와 멕시코시티 공무원, 관련 학과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발표를 경청했다.

- 멕시코시티는 지난해 12월 환경운동가 출신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(Claudia Sheinbaum) 시장 취임 이후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, 최근 서울형 도시재생에 대한 현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.
 - 포럼은 현재 세계 대도시들이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미래의제인 ‘지속가능한 인간 포용도시’를 주제로 열렸다. 진행은 여성 최초로 국제건축가연맹(UIA) 회장을 지낸 멕시코 국적의 사라 토펠슨 프리드만(Sara Topelson Freedman)이 맡았다.
- 약 20분 간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이 성장과 개발만을 최우선으로 여겨왔던 시대에 전면철거 방식의 대규모 도시 개발로 인한 공동체 해체가 가속화됐으며, 수도로서 천 년이 넘는 역사와 다층적인 매력을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사람 중심의 재생이 필요했다고 ‘서울형 도시재생’의 탄생 배경을 밝혔다.
- 이어서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주도와 참여를 핵심기반으로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했다.
 - ▲ 600회가 넘는 만남과 대화로 지역주민의 우려와 반대를 해결하고 지금은 개장 2년 만에 방문객 1,700만 명이 다녀가며 주변상권을 살리고 있는 ‘서울로7017’
 - ▲ 40여 년 간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됐던 거대 석유탱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한 ‘마포문화비축기지’

▲ 7-80년대 전자산업 활황기를 이끈 주역에서 이제는 기술장인과 청년창업가를 아우르는 창의제조산업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‘세운상가’
 ▲ 비어있던 대형 창고를 리모델링하고 오래된 영세 헌책방 29개소가 참여해 탄생한 전국 최초의 공공 헌책방 ‘서울책보고’ 등이 대표적이다.

□ 끝으로 박원순 시장은 강연을 마무리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도시재생의 세 가지 도전과제로 ▲ 공공주도의 재정지원의 한계를 넘어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는 ‘자립형 도시재생’ ▲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전환기를 대비하는 ‘스마트 도시재생’ ▲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‘친환경 도시재생’을 제시했다.

□ 한편, 박원순 시장은 현지시간으로 20시엔 멕시코주지사연합회(CONAGO) 내 멕시코-아시아태평양 위원회가 초청하는 만찬에 참석, 멕시코 지방정부 장들과 네트워크 시간을 갖고 서울과 멕시코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.

□ 멕시코주지사연합회(2002년 창설)는 멕시코 32개 지방정부 장으로 이뤄진 연합회로,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연합인 대한민국시도지사연합회(GAOK)의 국제적 파트너다. 박원순 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양 국의 지방정부 간 교류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.

○ 이날 만찬에는 멕시코주지사연합회(CONAGO)의 롤란도 가르시아 마르티네스(Rolando García Martínez) 사무총장과 멕시코-아시아태평양위원회의 위원장인 마틴 오로스코 산도발(Martín Orozco Sandoval) 아과스칼리엔테스 주지사, 멕시코주지사

연합회장인 프란시스코 도밍게스 세르비엔(Francisco Domínguez Servién) 퀘레타로 주지사, 카를로스 멘도사 다비스(Carlos Mendoza Davis)바하 캘리포니아 수르 주지사,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가르시아 카베사 데 바카(Francisco Javier García Cabeza de Vaca) 타마울리파스 주지사, 쿠이트라우악 가르시아 히메네스(Cuitláhuac García Jiménez) 베라크루스 주지사, 오마르 파야드(Omar Fayad) 이달고 주지사 등 멕시코 지방정부 주요인사들과 김상일 주멕시코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.

□ 박원순 시장은 “한국은 멕시코의 교역 상대국 중 세계에서 6번째 규모다. 한국 입장에서 멕시코는 중남미 교역국 중 최대 규모로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. 수도 서울의 시장이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양 국의 지방정부 간 교류증진 노력에 앞장 서겠다”며 “특히 오늘 「서울-멕시코시티 지속가능한 도시포럼」을 계기로 도시재생 분야에서 양 도시 간 협력적 연대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. 멕시코시티가 서울형 도시 재생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 전수에 나서겠다”고 말했다.